

초 | 압 | 축  
요 | 약 | 집



인문·예술편

## EBS 독서 배경지식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매년 다채로운 이슈가 쏟아지는 수험 시장이지만, 한 가지 한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EBS 교재의 중요성입니다. 당연하지만 ‘킬러 문항’에 대한 논의로 설왕설래했던 작년도 예외는 아니었죠. 아니, 도리어 평준화의 기치 아래 EBS 연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매년 강조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어 과목에서의 EBS 교재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원이 연계율을 높여 출제하겠다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결국 교재에서 사용되었던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EBS 교재에서 출제된 문제 유형들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쿵 저러쿵 포장하곤 하지만, 결국 국어 과목의 EBS 교재에서 학생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소재’와 ‘연계 가능성’에 단순화해도 마냥 거짓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말 이 사람이 연계가 되긴 할까' 하는 생경한 인물을 다루는 인문, 예술 부문의 연계 지문들을 보면, 확신보다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을 짚어 나온 책입니다. 언제나 바쁘고, 언제나 가방이 무거운 수험생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책을 꺼내 200페이지가 넘는 교재를 뒤적이는 수고를 요구하는 건 간혹 가혹스럽다고 느껴 집니다. 어떤 소재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 연계했고 앞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만 충족해도 되는 순간에까지 말이지요.

인문, 예술 지문에서 다루는 소재가 그간 평가원과 교육청, 그리고 EBS 교재에서 얼마나 다루어져 왔는지, 또, 직접 연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소재에 대한 지문에서는 어떤 부소재가 연계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망라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지문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하였습니다. 가볍게 풀면서 내용을 반추할 ox 퀴즈는 덤이고요.

## 이 책의 차례

### 1장

#### 초압축 EBS 배경지식

연번	주제	EBS	페이지
[01]	노직의 최소 국가론	11	5
[02]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	27	6
[03]	서구 자연 철학에서의 공간관	31	7
[04]	예술 제도론	36	8
[05]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54	9
[06]	바흐친의 크로노토프와 연극	58	10
[07]	코나투스	62	11
[08]	보들레르의 현대 회화론과 마네	67	12
[09]	개화기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인들의 생각	71	13
[10]	과타리의 생태 철학	76	14
[11]	지멜의 예술론	81	15
[12]	러시아 절대주의와 구축주의	85	16
[13]	조선 시대 종합 예술로서의 <봉래의>	88	17
[14]	에스포지토의 주권과 면역	93	18
[15]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97	19
[16]	기정진의 이기론	101	20
[17]	칸트 철학에서 '숭고'의 문제	106	21
[18]	미국의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	223	22
[19]	중국의 사의화와 조선 후기의 회화론	228	23
[20]	조선 시대의 대동법과 현대의 조세 원칙	232	24
[21]	직관주의와 정의주의	283	25
[22]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	298	26
[23]	테넷의 지향계 이론	303	27

### 2장

#### 부록

##### OX 퀴즈

#####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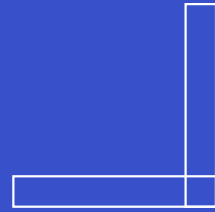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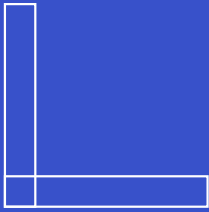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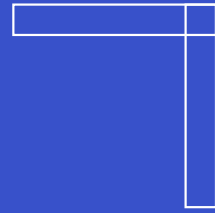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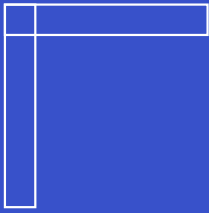
필수 개념 암기를 위한 초압축 OX 퀴즈

29

---

**초압축**

**EBS 배경지식**



# 지문

## 02

##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

<b>EBS 수능특강</b>	27쪽
<b>포인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지문은 미(美)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의 주장이 근간으로 두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 형성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어떻게 아퀴나스의 미학의 근간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li> <li>이 지문은 언뜻 아퀴나스에 관한 지문처럼 보입니다. 아퀴나스는 신학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건드리는 측면이 있기에 평가원에서 생각보다 자주 다루지 않는 인물인데요. 이 지문이 그런 민감한 부분을 감히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아퀴나스의 주장의 근간이 되는 이론,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 형성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EBS 교재와 모의고사에서 빈출되는 소재이지요? 이 점에 유의하며 지문에서 연계되어 출제될 만한 개념을 짚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li> </ul>

<b>연계 개념</b>	<b>스콜라 철학</b>	<span style="color: #0056b3;">■□□</span>
<b>EBS 기출</b>	21수특(토마스 아퀴나스의 악에 관한 논증)	
<b>평가원 기출</b>		
<b>교육청 기출</b>		

<b>연계 개념</b>	<b>질료 형성론, 아리스토텔레스</b>	<span style="color: #0056b3;">■ ■ □</span>
<b>EBS 기출</b>	20수특(엠포르멜 미술의 개념과 특징), 21수특(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 22수특(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 22수완(빛과 색에 대한 이해, 무지개의 형성 원리), 21수특(진공의 정의와 압력의 측정), 21수특(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	
<b>평가원 기출</b>	219모((가) 미학과 예술의 조건에 대한 견해 변화), 19수능(서양과 동양의 우주론 변화), 18수능(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b>교육청 기출</b>	1604학평(개념-부리들)	

**■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의한 미(美)**

예술 작품의 미(美)

신의 창조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함.

인간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만든 인간의 아름다움의 반영임.

신

궁극적으로 인간 본성은 신으로부터 유래함.

★ 미는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지 않고, 신이 창조한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어떤 사물이 아름답다면 그것은 미가 인식되기 이전에 이미 그 자체로 실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미의 실재성)

완전성

비례성    시

명료성

**■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 형성론'**

- 질료 형성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한 개념으로, 모든 사물은 질료(가능태)와 형상(사물의 본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음.

 대리석 ↓ 질료(가능태) ↓ 질료	+	 아폴론 ↓ 형상(사물의 본질) ↓ 신으로부터 비롯된 사물의 본성	=	 아폴론 조각상 ↓ 현실태(사물) ↓ 신의 피조물
------------------------------------	---	---	---	--

★ ...

# 러시아 절대주의와 구축주의

EBS 수능특강 85쪽

**포인트**

- 이 지문은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전개되었던 아방가르드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대 열렸던 전시회에서 아방가르드가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난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문에서 등장하는 말레비치와 타틀린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인물의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지문은 가끔씩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문에서 소개한 작가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는 감히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전례를 찾기 힘들죠. 이는 익숙하지 않은 인물의 세계 자체를 곁핥기로나마 알기에는 EBS 교재에서 다룬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문에서 연계를 염두에 둘 것은 바로 아방가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방가르드 자체는 이미 EBS 교재 등에서 복수 출제된 바가 있기에, 해당 지문에서 두 작가를 통해 제시되는 아방가르드의 특징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 개념**

아방가르드



**EBS 기출**

24수특(그린버그의 미술 비평), 20수완(아방가르드와 예술 작품의 가치)

**평가원 기출**

**교육청 기출**

■ 지문 요약

[Redacted text] 와 [Redacted text] 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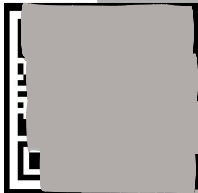
■ 아방가르드

[Redacted text] 직임

■ '마지막 입체-미래주의 전시 :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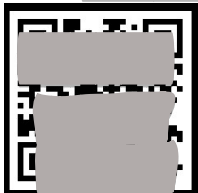
- 말레비치와 타틀린의 작품이 전시되었던 전시회

- 참고 자료: [Redacted text]



★ 말레비치 화풍이 발전해 가는 과정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10분 정도되는 영상인데 다 보기 귀찮다면 앞 3분 정도만이라도 시청해 두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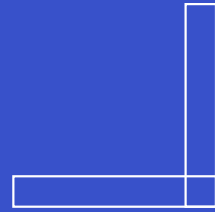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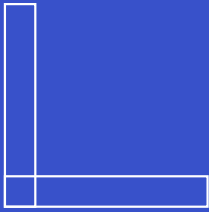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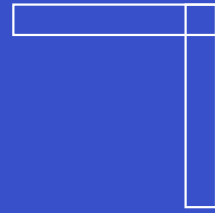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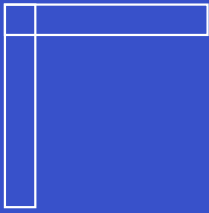
- 참고 자료 [Redacted text]



★ 타틀린의 작품 세계를 설명한 영상입니다. 타틀린의 작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라도 봐 두기 바랍니다.

**부록**

**OX 퀴즈**



## 필수 개념 암기를 위한 초압축 OX 퀴즈

정답

01	[Redacted]	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5쪽
02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6쪽
03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7쪽
04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8쪽
05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9쪽
06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0쪽
07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1쪽
08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2쪽
09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3쪽
10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4쪽
11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5쪽
12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6쪽
13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7쪽
14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8쪽
15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9쪽
16	[Redacted]	았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20쪽
17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21쪽
18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22쪽
19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23쪽
20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24쪽
21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25쪽
22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26쪽
23	[Redacted]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27쪽